

봄철의 절기 — 경칩에서 소만까지 —

김 우 탁
〈기상정보센터 소장〉

경칩 - 아직은 쌀쌀한 날씨

계절상으로 보면, 경칩 이후부터는 만물이 소생하면서 활동을 개시하는 계절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원래 경칩이라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나 뱀 등의 냉혈동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밀게 된다는 절기인데 실제의 기후는 아직 늦추위가 도사리고 있어 땅속의 동물이 세상 밖에 나올 개재가 못 된다. 그러

나 그들 자체는 벌써 변화를 보이기 시작해 몸부림을 친다.

그래서 북국에서는 땅속 동물의 변화를 살펴서 계절의 늦고 빠름을 짐작한다고 한다

미국의 농민들도 옛날엔 이 무렵의 되면 땅두더지를 찾아다니면서 두더지가 보이면 씨 뿌릴 준비를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칩은, 남부지방은 3월 중순, 중부지방은 3월 하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무렵은 동물의 경칩기라

고 하기 보다는 식물 경칩기라고 보는 것이 더 어울리며, 동물의 경칩은 식물보다 20일 가량 늦어지는게 보통이다.

춘분 - 한난(寒暖)의 경계점

일년에 24 절기가 철따라 들지만 춘분만큼 반가움을 안겨다 주는 절기도 없을 성 싶다. 그것은 춘분이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날이 지나면 하루 평균 2분30초 가량씩 낮이 길어지고 햇살도 점점 두터워져 땅의 지열이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온의 상승률도 앞으로 20일간이 일년중 가장 높은 시기가 된다.

옛날 동양에서는 이날을 농경일로 삼아 채소 씨앗을 뿌렸으며, 서양에서는 계절을 따질 때 춘분 이후를 봄으로 했다. 우리가 사는 중위도 지방의 기후도 이 무렵이 한난의 경계점을 이루는 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제는 봄으로 들어 간다. 그야말로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그렇지 못해 쉬 피로하고 봄을 타기 쉬운 철이 된다

한식 - 바람이 많은 계절

우리 나라는 대륙과 해양이 맞붙어 있어 그 위치적인 조건으로 해서 철따라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긴 한데 특히 한식을 전후해서는 큰 바람이 불 때가 많다



한식절의 유래만 해도 바람과 깊은 관련이 있다. 동지로 부터 1백5일째가 되는 이 날에는 해마다 심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날은 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이 때문에 찬밥을 먹게 됐다는데 연유하고 있다.

해마다 이 무렵에는 산불도 많이 발생한다. 성묘객들은 불조심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한다.

한편 4월5일과 6일은 기상특이일(氣象特異日)로 불린다. 기상현상이라는 것은 일년 3백65일을 두고 하루도 같은 현상이 없다고 하는데, 몇 십년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통계해 나가다보면 어느 한 날에는 해마다 비슷한 기상현상이 되풀이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기상특이일이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식을 전후해 큰 바람 아니면 비가 올 때가 많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러 갔다가 비를 만나거나 심한 바람으로 해서 식목일 행사를 망친 경험들이 많을 것이다.

곡우 - 상춘의 계절

곡식에 필요한 비가 자주 내린다는 계절 곡우가 지나면 세시기 상으로는 늦은 봄으로 접어 드는 셈이 된다.

날씨가 따뜻할 때에는 초여름이 무색할 정도로 햇볕이 두터우며 냉기가 스며들 때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기온이 내려 가기도 하지만, 산허리까지 벚꽃의 개화선이 오르기 시작하면 냉기의 기습도 이제는 완전히 물러가게 된다.

이 무렵은 기후학상 날씨의 변동이 가장 심한 계절에 해당되나 평균기온으로 보면 일상 생활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된다. 그래서 이 무렵은 피로가 자주오고 몸이 나른해 지면서도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산과 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한 주일 내내 계속되는 그런 계절이 된다.

그런데 이 때는 날씨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행락을 즐길 계획을 세울 때 맑고 따뜻한 날 다음날의 날씨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입하 - 성큼 다가온 여름

「봄은 오더니 가더이다」라고 노래한 시도 있는 것 처럼 어느새 봄은 물러가고 이제 세시기로서는 여름으로 접어든다.

신록은 제풀에 우거지고 농촌에서는 못자리 가꾸기가 한창인 계절. 화력(花曆)으로는 분꽃, 등꽃, 라일락 등이 피는 계절이요, 잠자리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산과 들에는 빠꾸기 소리가 들리며 파리도 이때부터 나뉘나기 시작한다.

한편 그 동안은 건조한 날이 많았지만 이젠 남부지방에서부터 습한 날이 많아진다.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계절이 되니까 방습과 방충에도 신경을 써야할 때가 되겠다.

상춘의 계절을 보내면서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과로하기가 쉬운데서 오는 신체상의 부조리가 연말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라는 것도 계산해야 한다.

소만 - 맥추(麥秋)의 계절

땅은 양기로 가득하고 온갖 생물은 생명감으로 가득해진다든 계절이다.

산과 들에는 온통 푸르름의 일색이요 절기상으로는 이제 초여름과 성하의 길목에 놓인다. 바다에서는 안개가 자주 끼며 육지에서는 대나무가 누렇게 물들고 산에서는 빠꾸기와 두견새 울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 계절의 그림이요, 시라고 하겠다. 그 가운데서도 대나무는 가을을 만나 듯 그 잎이 누렇게 물들어 가 이 계절에 빼놓을 수 없는 5월의 일경이 된다.

대나무는 봄에 고엽이 되고 가을에 신록을 이루기 때문에 이 계절의 대나무를 가리켜 죽추(竹秋)라고 부른다.

이것은 여름에 보리 밭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을 맥추(麥秋)라고 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여수 앞바다에 있는 오동도는 해마다 이 때 썸이면 죽추(竹秋)로 일경을 이루는 곳이다.

이 섬의 해변가에는 동백꽃이 만발하고 섬 가운데는 대밭이 물들어 봄과 가을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 이 계절의 독특한 관광지로 꼽힌다.

소만을 전후해서 부터 남해안 지방은 비가 잦고 때로는 초여름 장마기로 접어든다. ☞